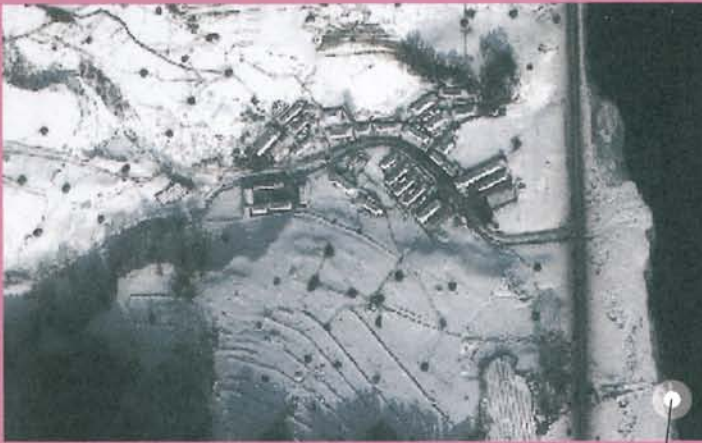


그림으로 보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북한 정치범수용소 위치와 현황



14호

평남 개천 외동리와 5개 골짜기 ▶ 5만여 명 수용

25호

함북 청진 송평구역
수성동 ▶ 5천여 명
수용

16호

함북 화성 부하리 일대
▶ 2만여 명 수용



18호

평남 북창군 석산리 일대 ▶ 1만여 명 수용



22호

함북 회령 중봉 · 낙생 · 굴산리 ▶ 5만여 명 수용

북한 정치범수용소란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와 가족들을 수감하는 곳이다.

정치범수용소는 감옥 형태가 아닌 일반 농촌 마을과 유사하고,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집단수용소', '유배소', '○○관리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김정일 정권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기록상으로는 '조선인민경비대' 예하 군부대로 위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 외교관, 해외도주 기도자, 체제 비판자들의 수감이 증가하고 있다.



15호

함남 요덕 룡평 · 평전 · 립석 · 대숙 · 구읍리 일대
▶ 5만여 명 수용

“ 정치범수용소 6곳,
20여만 명 수감 중

적법한 절차없이
소리 소문없이 끌려가

처참한 공개처형 · 고문,
심각한 영양실조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 ”



북한 정치범수용소 위치와 현황 2

최장기수 탈북자 김혜숙의 편지 5

최장기수 탈북자 김혜숙이 그린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 지도 6

완전통제구역 출생 신동혁이 말하는 14호 개천 정치범수용소 8

수감자들의衣食住 10

수감자들의 강제노동 12

수감자들이 당하는 고문 13

수용소내 별도 처벌 구역 구류장 15

수감자들이 증언한 공개처형 17

그림 제공 (본문에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색깔로 구분)

- 김혜숙
 - 『완전통제구역』(안명철 저, 시대정신, 2007년)
 - 『세상 밖으로 나온다』(신동혁 저,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년)
 - 『2005북한인권국제대회』자료집(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5년)
- 위성사진 『감춰진 수용소』(데이빗 호크 저, 시대정신, 2003년), 구글어스

본 자료집은 김혜숙(18호 정치범수용소, 1975~2002년 수감), 신동혁(14호 정치범수용소, 1984~2007년 수감), 안명철(22호 정치범수용소, 1990년 후반~1994년 중반) 등의 탈북자 증언과 직접 그린 그림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김혜숙의 편지

그리운 내 딸, 아들이!

단 한 번도 나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딸과 아들이, 만약 죽었다면

이 엄마의 야속함을 저승에 가서도 버리지 못할 것이고,

그 어딘가에 살고 있다면 이 엄마를 얼마나 찾고 있을까?

너희들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아온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이 엄마는 너희들을 찾아 수많은 곳을 다녔지만

도저히 소식조차 알 수 없어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 왔단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는 너희들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하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이렇게 떠나왔단다.

엄마는 그 고통의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고기 한 점 먹이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오늘도 눈물로 너희들을 그리워하는구나.

하나님, 세월의 강 넘어 어디에서라도

우리 셋이 꼭 만나게 하여주소서. 하나님 빌고 비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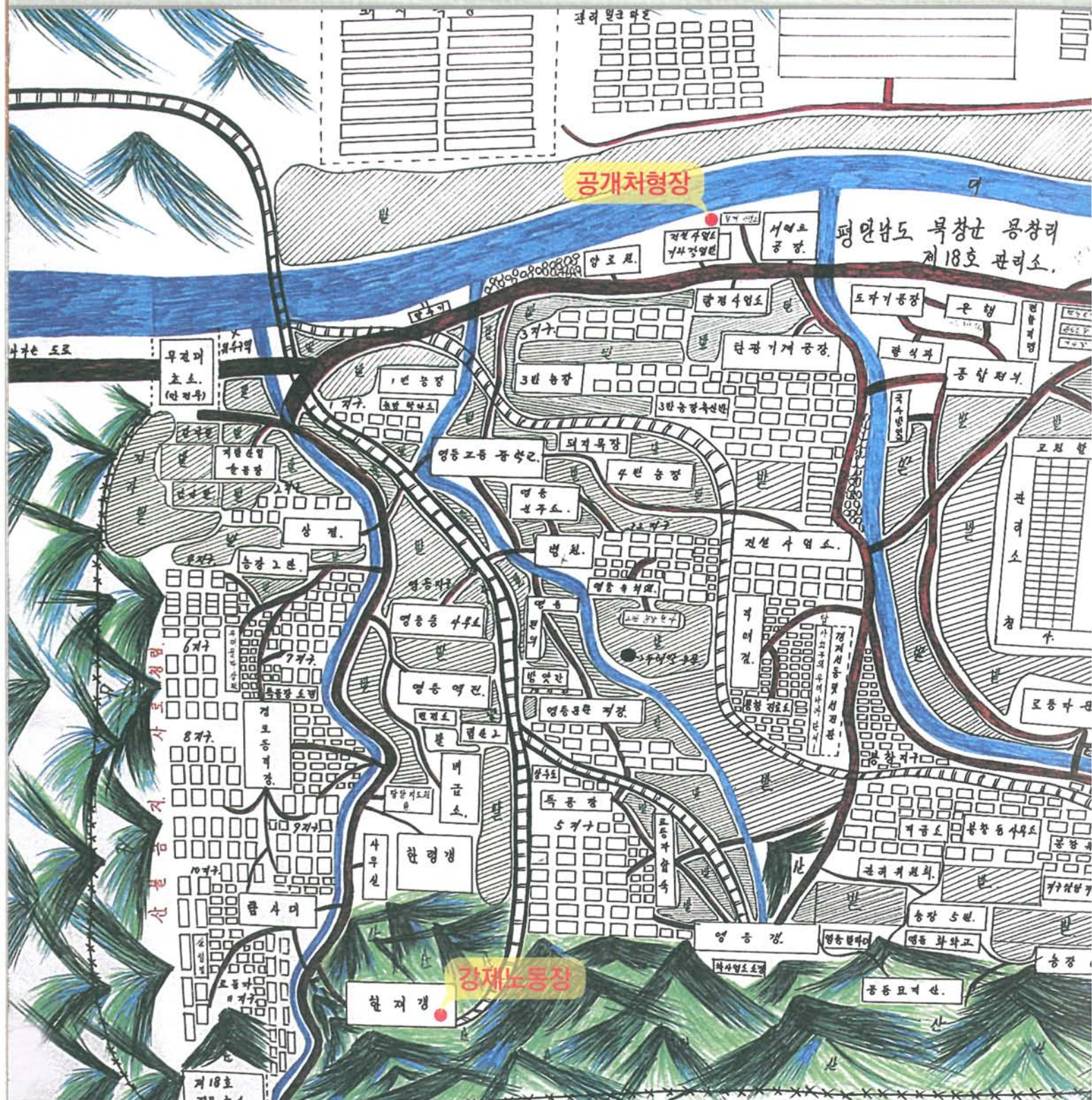
북한 정치범수용소 최장기수 탈북자

김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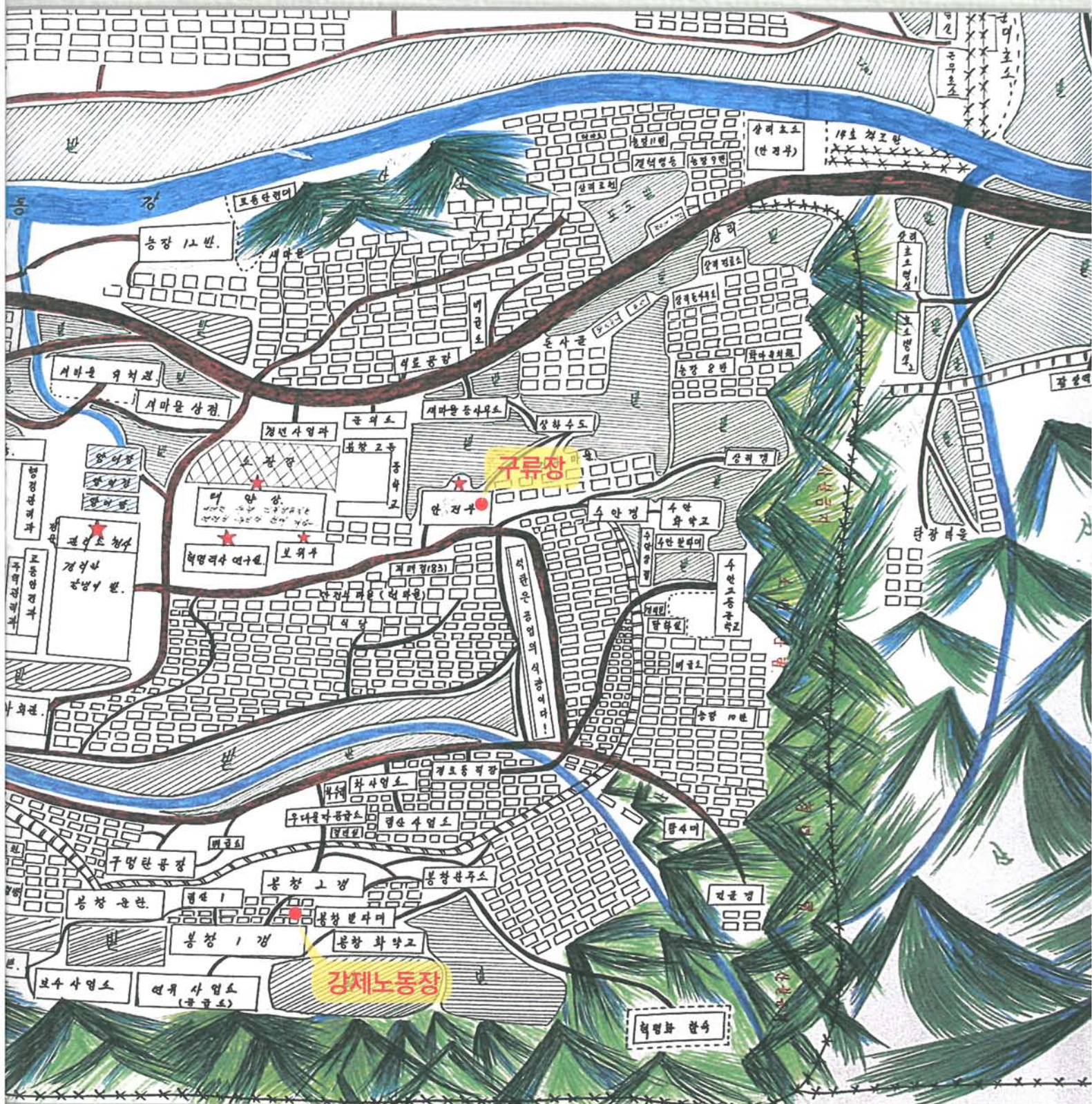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1975년 조부가 6·25때 월남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평안남도 북창군 제18호 정치범수용소로 강제 이주되었다. 김혜숙은 정치범수용소의 심산갱, 한재갱 등에서 탄광노동을 하면서 2002년까지 살았다. 2003년 대흥수 때 13살 난 딸과 9살 난 아들을 잃었다. 2008년 중국을 거쳐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2011년 현재 한국 및 국제사회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장기수 탈북자 김혜숙이 그린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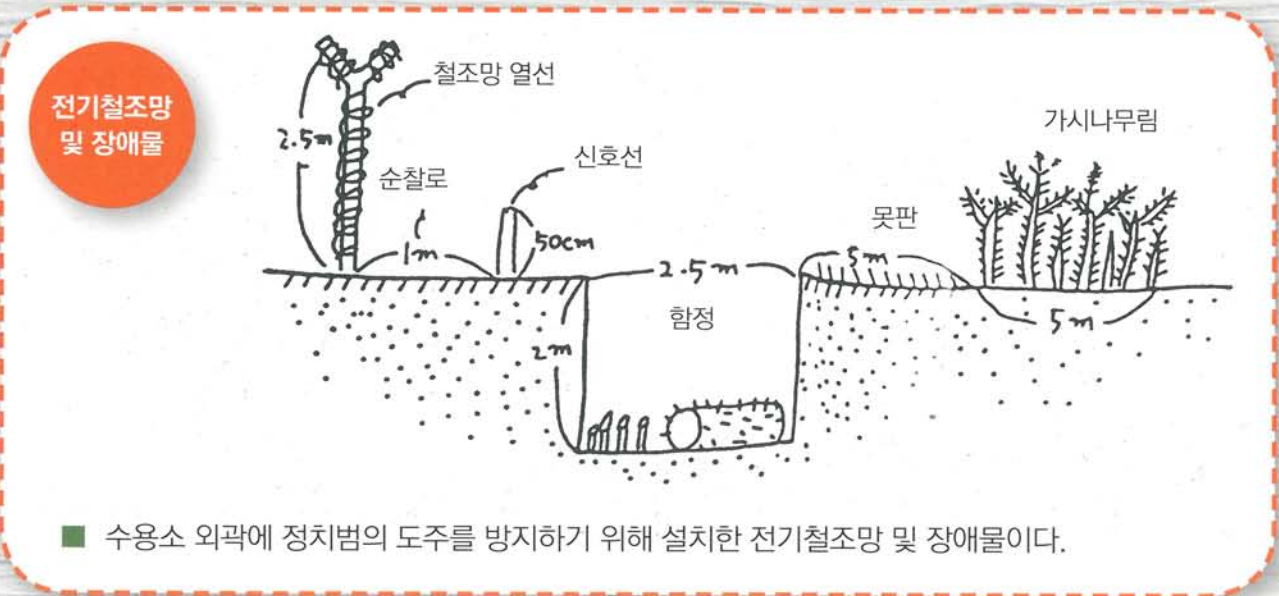


김혜숙이 28년간 수감되었던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이다.



완전통제구역 출생 신동혁이 말하는

14호 개천 정치범수용소



전기철조망 및 장애물

■ 수용소 외곽에 정치범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철조망 및 장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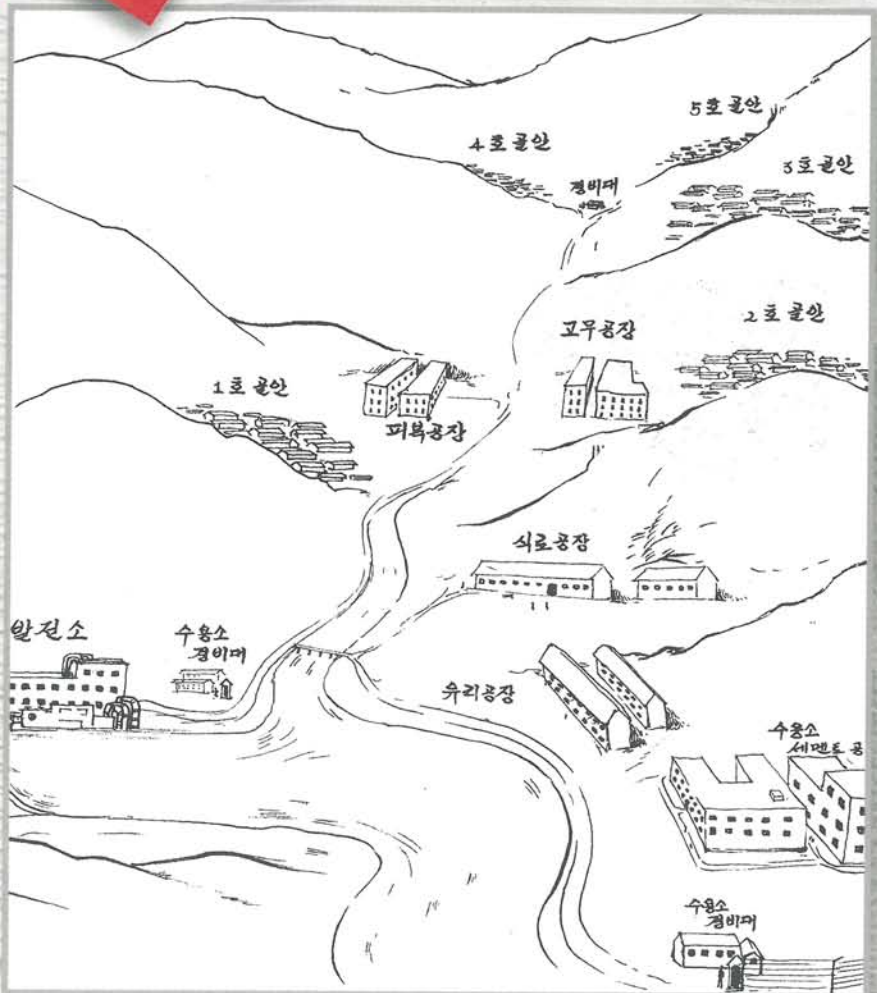
■ 14호 정치범수용소 내부 그림으로 대동강과 철조망을 경계로 학교, 마을, 5개 골짜기, 공장의 위치가 나와 있다.



내가 탈출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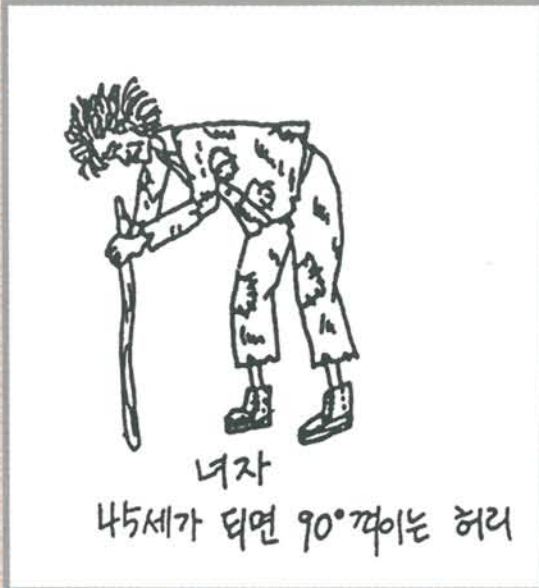


■ 본마을, 1-5호 골짜기와 공장의 위치 확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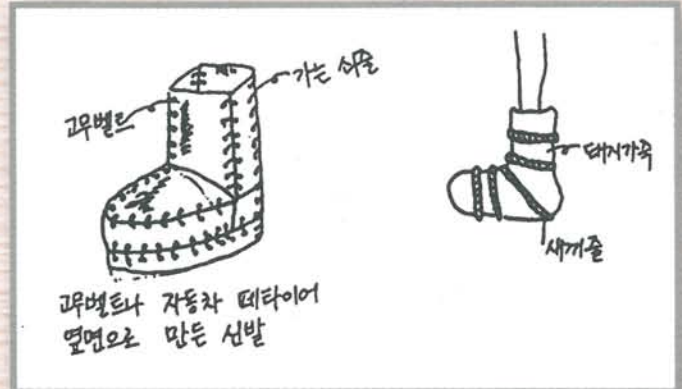


수감자들의

衣食住



■ 누더기가 된 옷



■ 수감자들이 직접 만들어 신는 양말과 신발

衣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옷과 이불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가 거의 공급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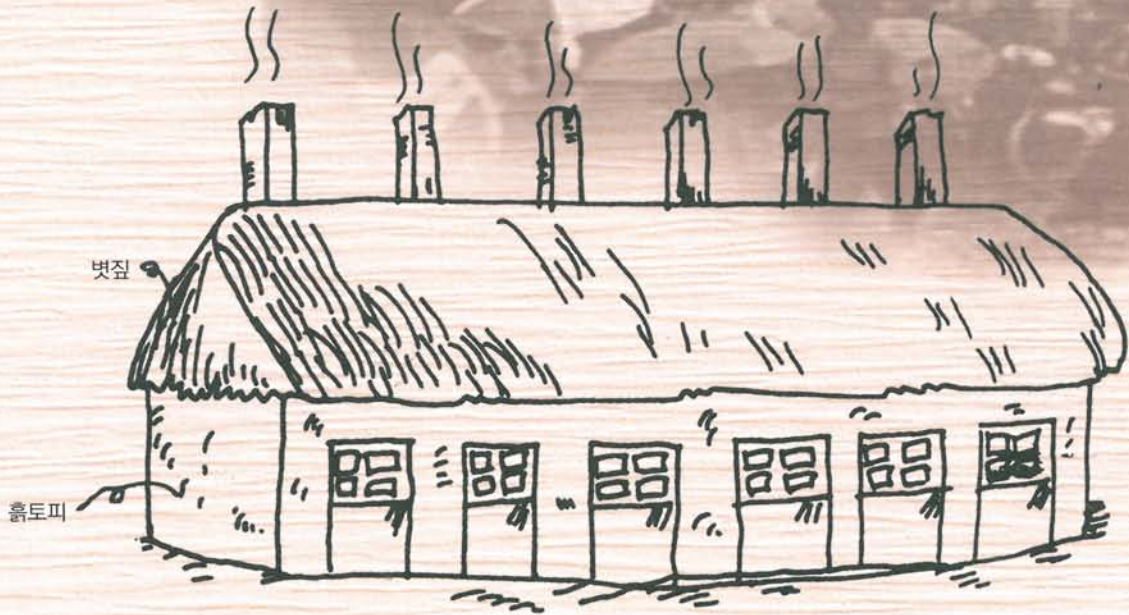
수감자들은 겨울에 느릅나무를 쪼개 밑창으로 하거나, 쥐를 잡아 고기는 먹고 가죽을 밑창으로 대고 첩으로 끈을 엮어 감은 '지화족'을 만들어 신음.

食

- 수감자들의 일일 음식량 : 배급량 350g 미만, 염장배추 3줄기, 약간의 소금
- 식량난 시기 배급량 : 하루 200g
- 배급된 식량만으로는 부족해 개구리나 뱀, 쥐, 나무열매, 나무껍질, 풀뿌리, 돼지 먹이 까지 보위원들의 감시를 피해가며 닥치는 대로 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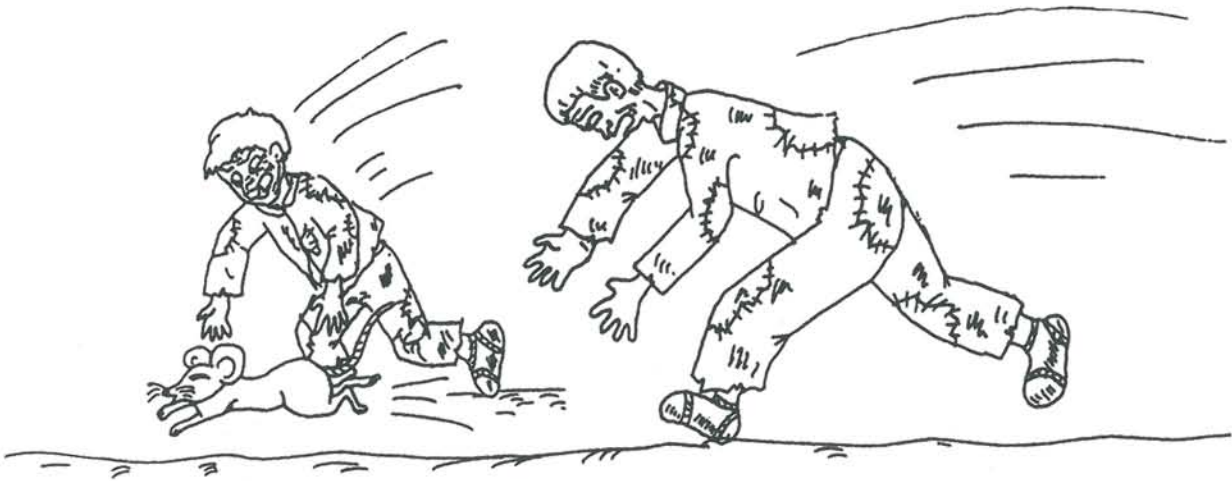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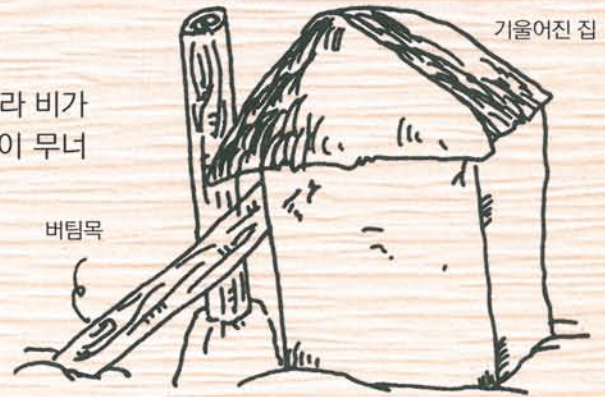
<참고> 펠라그라 수감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며 영양부족에서 오는 일종의 피부병. 손발, 목, 얼굴 등의 홍반(紅斑), 신경장애,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몸에 마른버짐이 심하게 핀 것처럼 피부가 거칠어지고 껍질이 벗겨짐.

住



■ 정치범 가족마을 집 구조(일명 하모니카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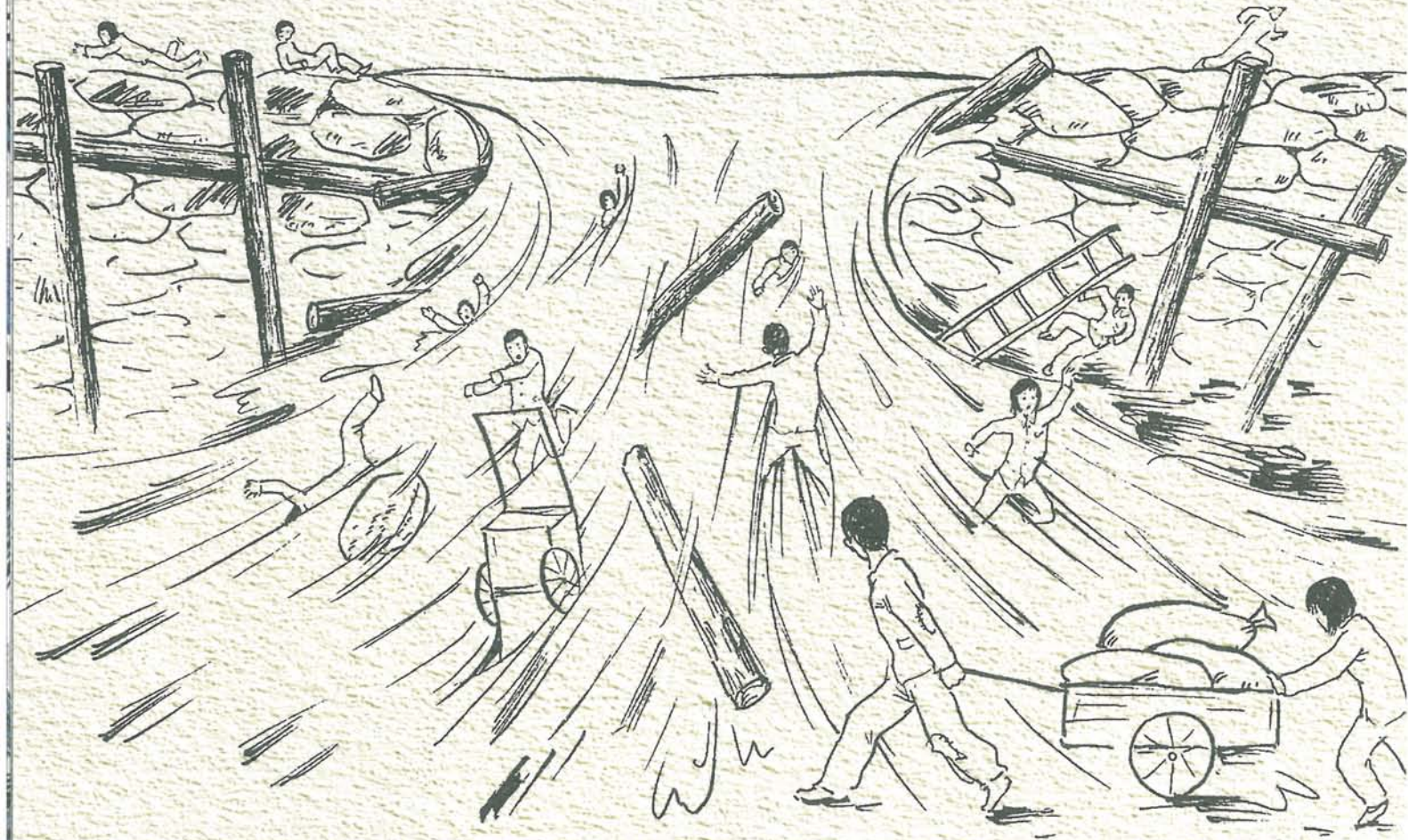
1개 동에 5~6가구 거주. 흙벽돌로 지은 집이라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받침대를 세움.



■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쥐고기는 유일한 식육이며, 정치범수용소 안의 쥐들은 거의 멸종상태에 있다.

강제노동

강제노동 중 폭우로 쓸려간 사람들



■ 1998년 7월 중순경, 14호 개천 정치범수용소에서 발전소 건설에 강제 동원된 수십 명의 수감자들이 폭우에 건설 중인 둑이 무너져 물에 쓸려 떠내려가 목숨을 잃었다.

아동·청소년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내에도 학교가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노동만 시킴.

사례1

농촌지원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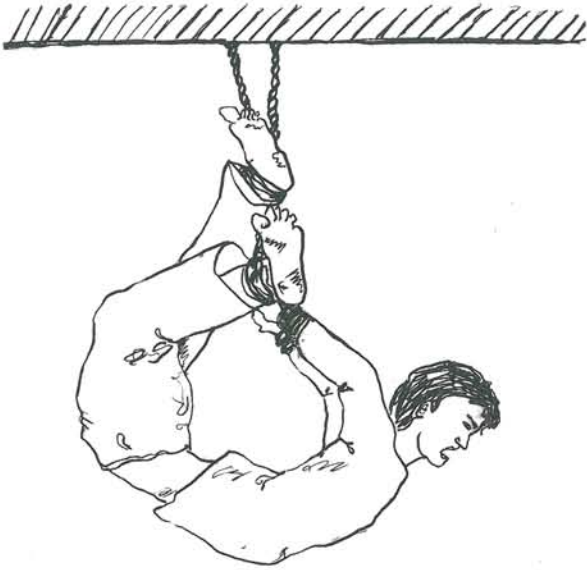
- '부식토 작업',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 하루 작업량 1인당 50평
- 작업량 완료 시 1일분 강냉이 배급 받음.

사례2

꼬마 외화벌이 7개년 계획

- '토기 사육', '토끼풀 채취 사업'
- 하루 작업량 1인당 20kg

고문



고문 유형

비둘기 고문, 펌프훈련 고문(앉고서기 반복 고문), 마구잡이 전신 구타 고문, 임신부 복부구타 고문, 생니를 뽑는 치아 고문, 전기 고문, 잠수나 물을 이용한 질식 고문, 장시간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고정자세 고문, 신체절단 고문, 화상 고문 등

■ 비둘기 고문

손과 발을 묶어 장시간 매달아 두는 고문



■ 펌프훈련 고문

의식을 잃을 때까지 앉고 서기를 반복케 하는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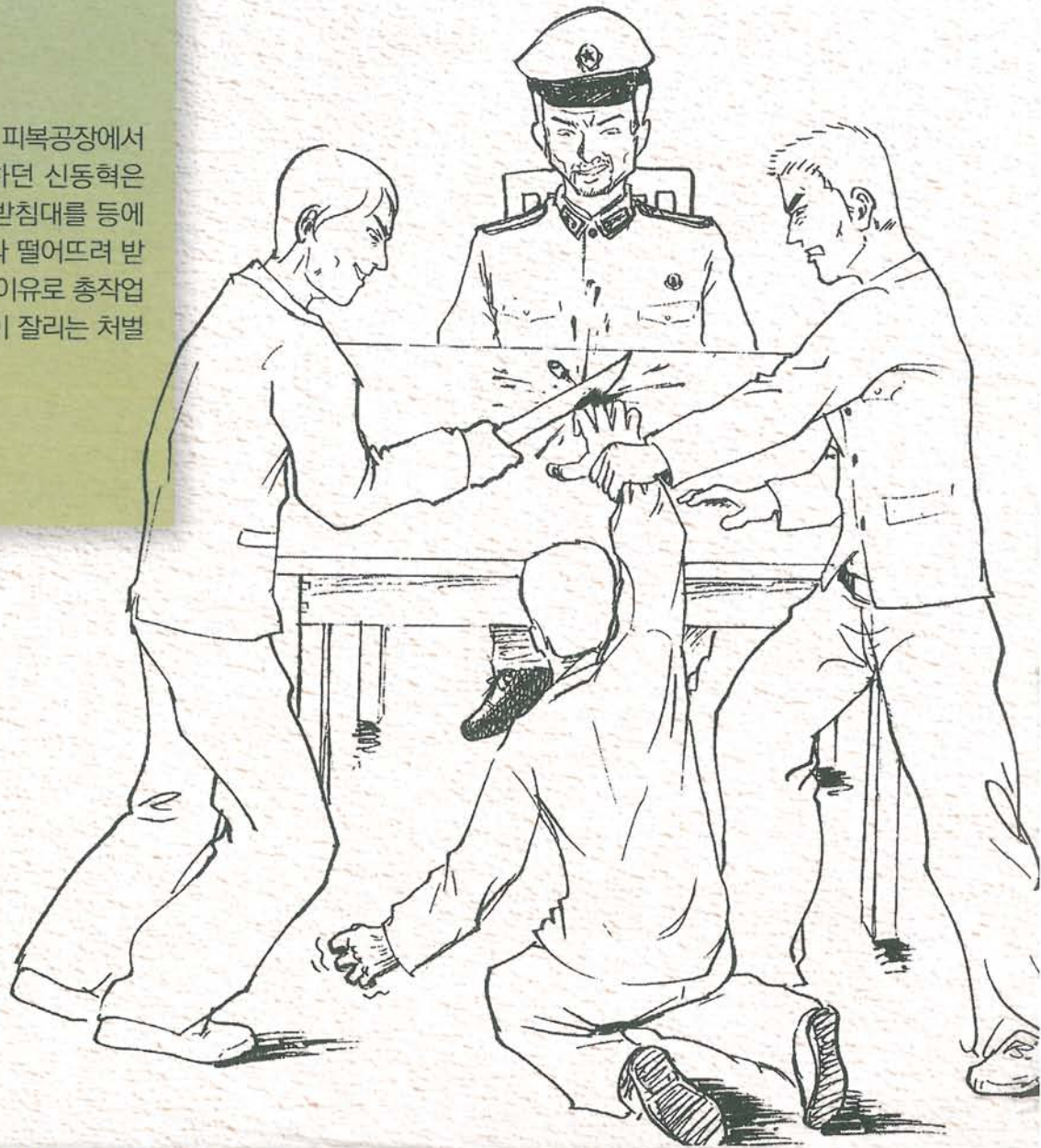


■ 구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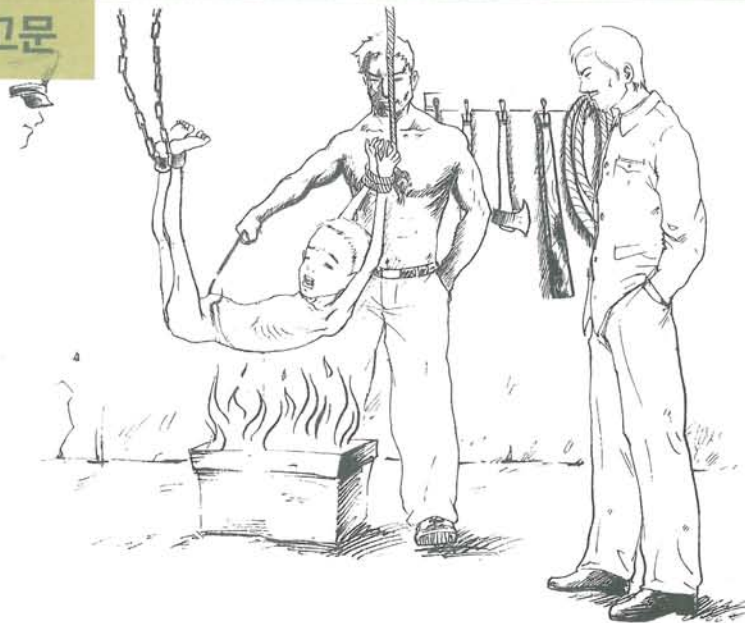
직경 5-8cm 참나무 각목으로 전신을 구타하는 고문

손가락 절단

- 14호 정치범수용소 내 피복공장에서 재봉기 수리를 담당하던 신동혁은 2004년 여름, 재봉기 받침대를 등에 지고 2층으로 올라가다 떨어뜨려 받침대를 부서뜨렸다는 이유로 총작업 반장으로부터 손가락이 잘리는 처벌을 당했다.



불 고문



- 신동혁은 14세 때, 그의 어머니와 형이 도주했다 잡혔다는 이유로 비밀감옥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 불고문을 당했고,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

구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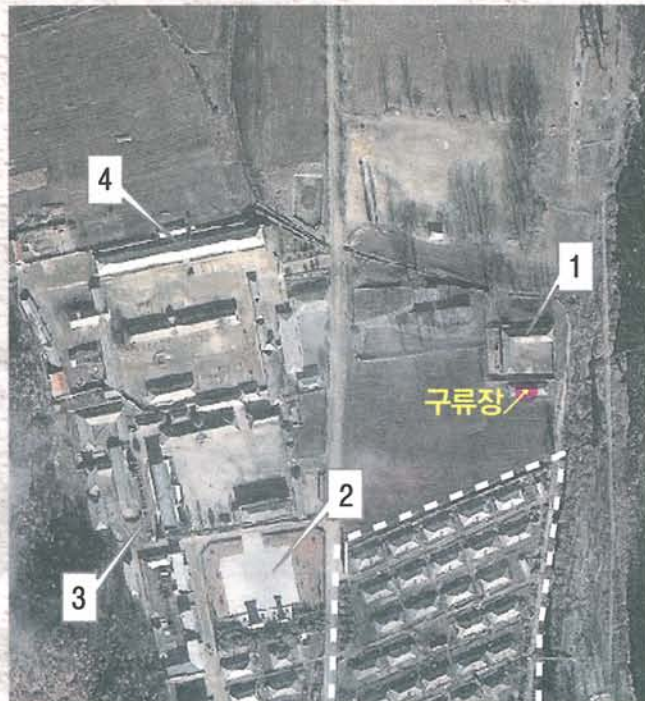
구류장이란

수용소 내에는 수용소 규정을 어긴 사람, 물건을 훔친 사람, 은밀히 연애를 한 사람, 그리고 보위원 또는 감독의 지시에 불복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구류장이 있다.

구류장에 들어가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취침하기까지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한다. 무릎을 펼 수 있는 시간은 식사시간과 대소변을 볼 때뿐이다.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 구류장

1 탈곡장 2 경비대원 자녀학교
3 경비대 본부 사무실 4 보위부 건물



22호 회령 정치범수용소 구류·고문장



구류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허락되는 햇빛쪼이기

■ 구류장에서의 하루 식량은 100g 콩밥과 소금국이 전부이다. 일주일에 30분씩 있는 햇빛쪼이기 시간에는 허기진 수감자들이 경비를 서는 간수 몰래 풀을 닥치는 대로 뜯어 먹는데 들기면 간수에게 구타를 당해 죽기도 한다.



<참고>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법 (출처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 ① 도주할 수 없다.
- ②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 ③ 도둑질 할 수 없다.
- ④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 ⑤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 자를 보았을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⑥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 ⑦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넘쳐 수행해야 한다.
- ⑧ 작업 외에 남녀 간에 접촉할 수 없다.
- ⑨ 자신의 과오를 깊이 있게 뉘우쳐야 한다.
- ⑩ 관리소의 법을 어겼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수감자들이 증언한

공개처형

■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14호 개천 정치범수용소에 몰래 들어가 강냉이를 훔쳐먹다 잡힌 수감자를 공개처형하기도 했다.



공개처형 은 모든 수감자들을 모아 놓고 도주, 반항, 명령 불이행 등으로 잡힌 수감자들을 재판 절차 없이 처형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언론에 보도된 공개처형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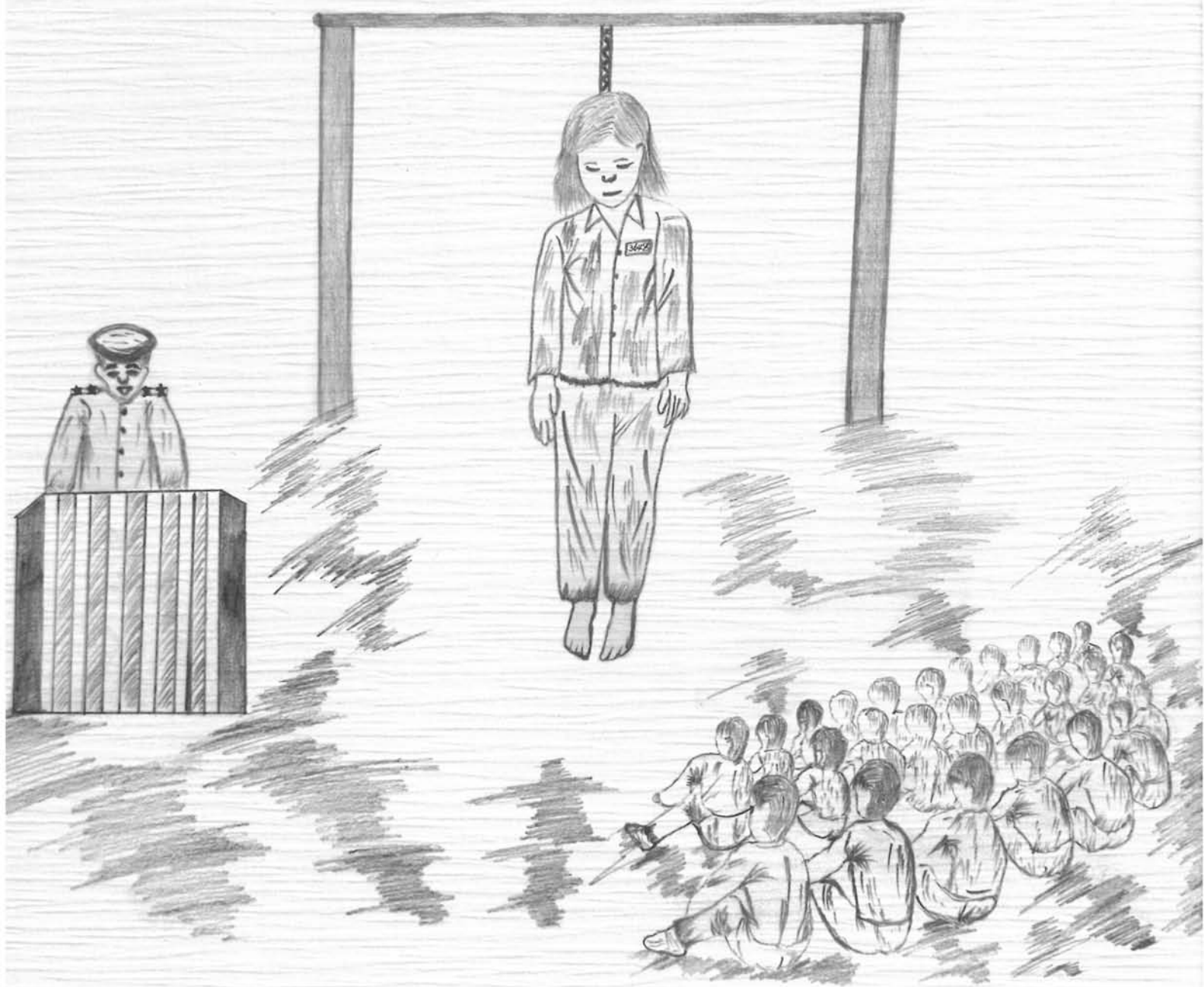
출처: 일본 N-TV, 2005년 3월 보도

미국 CNN, 2005년 11월 보도

“ 22호 회령 정치범수용소의 ‘수골’ 이라 불리는 곳에서 연간 10건 정도의 처형이 있었다. 이유는 대부분 가을에 수확된 농작물을 훔쳐 먹다 들킨 사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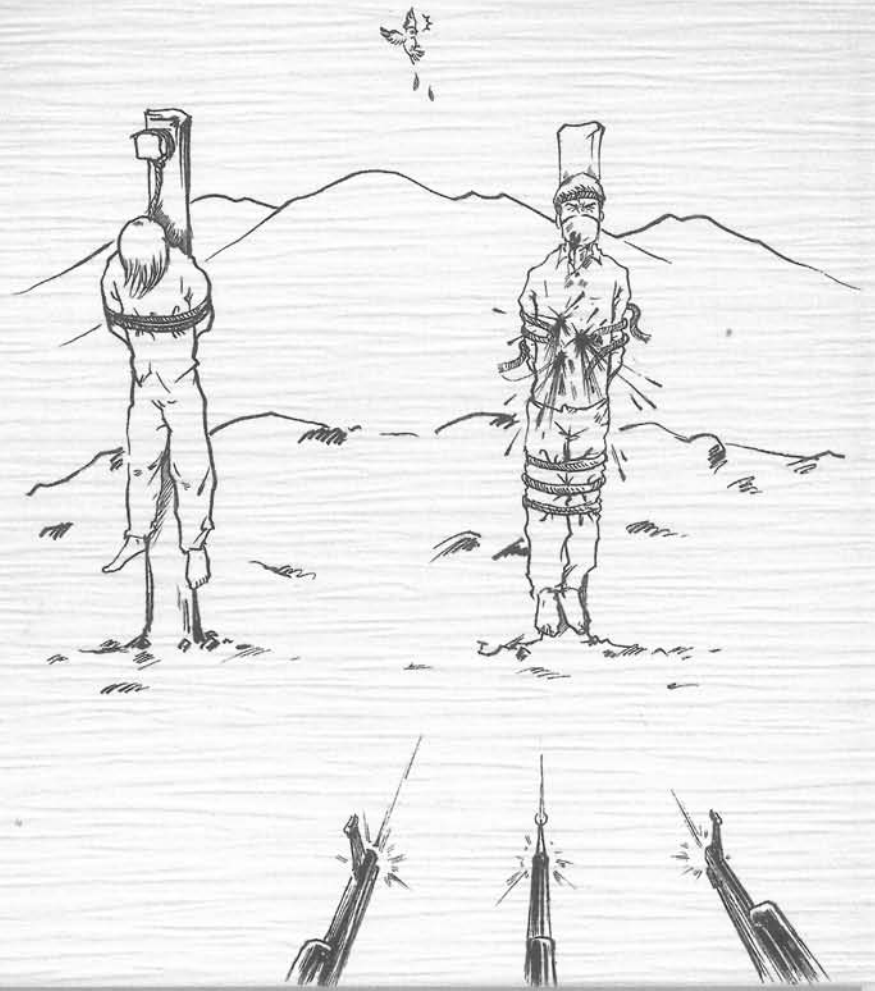
- 안명철 증언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장



■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에 있던 김혜숙은 수용소 내에서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어머니가 교수형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 1996년 11월 29일 14호 개천 정치범수용소를 탈출하려던 신동혁의 어머니(왼쪽)와 형(오른쪽)이 붙잡혀 와 신동혁과 그의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과 공개총살을 당했다.



■ 정치범수용소를 탈출했다가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송환되어 온 탈주자를 동료 수감자들이 돌로 때려 공개처형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www.nknet.org

110-044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14 필운빌딩 신관 4층 T. 02-723-6711 F. 02-723-6715

